

2019년 8월 1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경기 침체 우려 부각되자 하락 주요 투자은행들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 경기 침체 우려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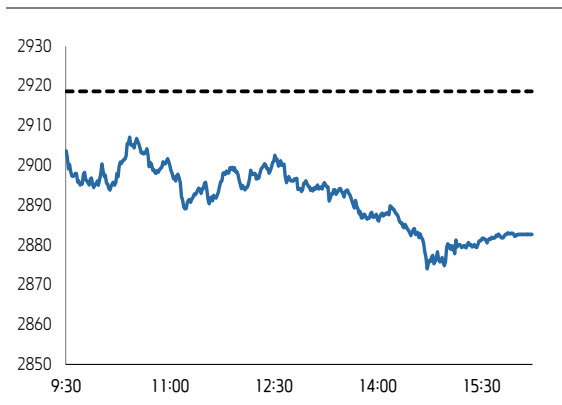
미 증시 하락 요인: 미 경기 침체 우려 부각, 홍콩 시위 격화

미 증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된 여파로 하락 출발. 특히 주요 IB 들이 미-중 무역분쟁 격화 여파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다는 평가로 투자심리 위축 되었으며 장단기금리차(2y-10y)가 6bp 까지 축소된 점도 부담. 여기에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이로 인한 중국발 정치 불확실성 또한 부정적인 요인. 모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경기방어주도 매물 출회된 점이 특징(다우 -1.49%, 나스닥 -1.20%, S&P500 -1.23%, 러셀 2000 -1.23%)

트럼프가 9월 1일 관세 발효를 언급한 데 이어 지난 금요일에는 9월 초에 있을 미-중 무역협상 취소 가능성을 시사. 이러한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미-중 무역협상은 2020년 대선 전까지 해결이 안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을 하향 조정(2.0%→1.8%). 여기에 모건스탠리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연준이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 더불어 BOA-메릴린치 또한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주장. 이렇듯 최근 주요 IB 투자전략가들은 미 증시 전망을 비관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미 언론은 이에 대해 트럼프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도. 투자전략가들이 전략을 발표해도 트럼프가 하루아침에 트위터를 통해 정책을 180도 변화 시키는 등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최악의 경우를 산정하고 투자전략을 발표하고 있다고 보도. 결국 악재가 악재를 불러와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홍콩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령해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도 부담. 홍콩의 무역규모는 세계 7 위로 한국보다 무역규모가 크고(중개무역 98%), 홍콩 공항은 화물 기준 세계 1 위이며, 홍콩항은 컨테이너 기준 세계 4 위를 차지. 관광객수도 6 천만명을 기록(한국의 4 배). 이런 가운데 홍콩 시위가 격화된다면 홍콩 경제 위축은 불가피. 여기에 베이징이 회의를 마친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홍콩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기에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음. 중국 정부 관계자가 ‘시위가 테러리즘을 보이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시위 지도부와 미국 영사와의 만남을 보도해 미국이 배후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주장해 홍콩 시위가 미-중 마찰로 확대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1,942.29	+0.23	홍콩항셍	25,824.72	-0.44
KOSDAQ	594.17	+0.70	영국	7,226.72	-0.37
DOW	25,896.44	-1.49	독일	11,679.68	-0.12
NASDAQ	7,863.41	-1.20	프랑스	5,310.31	-0.33
S&P 500	2,882.70	-1.23	스페인	8,676.40	-0.93
상하이종합	2,814.99	+1.45	그리스	831.16	-1.08
일본	20,684.82	휴장	이탈리아	20,263.83	-0.3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부분 종목 부진

JP모건(-1.87%), BOA(-2.44%), 웰스파고(-1.90%) 등 금융주는 미국 장단기 금리차(2y-10y)가 6bp 까지 축소되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했다. 엑손모빌(-0.51%), 셰브론(-0.70%), 코노코필립스(-1.65%), EOG리소스(-1.83%)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가 반등에 성공했으나, 경기 침체 우려로 향후 수요부진 가능성이 제기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월마트(-1.95%) 등 소매유통 업체는 물론 노드스트롬(-2.35%), L브랜드(-3.37%) 등 의류업체, TJX(-2.02%) 등 백화점 업체등도 경기 침체 우려 부각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유니온퍼시픽(-1.39%), 노퍽사우스(-1.78%) 등 철도 운송회사는 물론 아메리칸 에어라인(-3.96%), 델타항공(-1.46%) 등도 경기 둔화 우려속에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특히 항공 업종의 경우 홍콩 국제공항 마비 여파도 영향을 줬다. 반면, 식품 도매 회사인 시스코(+3.14%)는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다. 마이크론(+1.47%)는 씨티그룹이 기록적인 재고 수준과 주당 순이익 하향 조정 위험이 있어 투자의견 매도에 목표주가도 현재보다 낮은 30달러로 발표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EPS가 11.74달러에 도달해 6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62%	대형 가치주 ETF(IVE)	-1.23%
에너지섹터 ETF(OIH)	-1.09%	중형 가치주 ETF(IWS)	-1.28%
소매업체 ETF(XRT)	-1.84%	소형 가치주 ETF(IWN)	-1.19%
금융섹터 ETF(XLF)	-1.91%	대형 성장주 ETF(VUG)	-1.26%
기술섹터 ETF(XLK)	-1.32%	중형 성장주 ETF(IWP)	-1.38%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10%	소형 성장주 ETF(IWO)	-1.31%
인터넷업체 ETF(FDN)	-1.41%	배당주 ETF(DVY)	-1.16%
리츠업체 ETF(XLRE)	-0.08%	신흥국 고배당 ETF(DEM)	-1.23%
주택건설업체 ETF(XHB)	-1.3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90%
바이오섹터 ETF(IBB)	-1.25%	미국 국채 ETF(IEF)	+0.63%
헬스케어 ETF(XLV)	-0.95%	하이일드 ETF(JNK)	-0.26%
곡물 ETF(DBA)	-3.30%	물가연동채 ETF(TIP)	+0.38%
반도체 ETF(SMH)	-1.18%	Long/short ETF(BTAL)	+0.8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9.49	-1.48%	-0.73%	-9.10%
소재	355.98	-1.57%	+0.98%	-2.92%
산업재	625.70	-1.38%	+0.80%	-4.87%
경기소비재	919.54	-1.45%	+1.31%	-7.04%
필수소비재	604.88	-0.68%	+2.07%	-1.98%
헬스케어	1,045.49	-1.10%	+1.69%	-2.45%
금융	441.27	-1.92%	-0.32%	-5.61%
IT	1,357.45	-1.26%	+2.09%	-4.99%
커뮤니케이션	164.26	-1.01%	+1.31%	-3.85%
유틸리티	307.36	-0.30%	+2.29%	-0.43%
부동산	237.47	-0.30%	+3.48%	+1.7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위안화 변동성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9% MSCI 신흥 지수 ETF 도 1.25%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이 순매도(-1,761 계약)한 가운데 2.00pt 하락한 253.4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17.5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증시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주변 여건이 매물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12 개월 Fwd PBR 이 0.77 배를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 당시 저점 수준까지 하락해 있어 저가 매수 기대가 높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 증시 하락에 비해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목할 부분은 홍콩 문제다. 홍콩 이슈가 격화되면 위안화의 약세를 불러와 외국인의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다이하 회의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감안 중국 정부가 홍콩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높아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일 중국 정부 관계자가 “시위가 점차 테러리즘으로 변질 되고 있다” 라고 언급한 데 이어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 정부가 이를 빌미로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면 홍콩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위안화의 약세요인이다. 결국 한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부각 및 홍콩발 위안화 약세로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여타 국가에 비해 조정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중국 M2 증가율 둔화

중국 M2 증가율은 전년 대비 8.1%에 그쳐 지난달 발표치(yoy 8.5%)는 물론 시장 예상치(yoy +8.5%)를 하회했다.

중국 신규대출은 전월(1 조 6,660 억 위안)이나 예상치(1 조 2,750 억 위안)을 하회한 1 조 600 억 위안에 그쳤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 10년물 국채금리 1.65% 하회

국제유가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속에 수요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언급한 주요 투자은행들의 보고서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노딜 브렉시트 우려 부각 여파로 달러 대비 강세 폭이 제한 되었다. 한편, 역외 위안화는 물론 브라질 헤알화, 남아공 란드화등 신흥국 환율은 경기 침체 우려 부각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다는 주요 투자은행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락 했다. 특히 모건스탠리는 연준이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홍콩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하는 등 격화되는 경향을 보인 점도 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중국 정부가 이를 토대로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1.65%를 하회했다.

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부각되자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 했으나, 달러화의 약세로 낙폭은 제한되었다. 옥수수과 밀은 5% 넘게 급락 했는데 파종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2% 하락 했으나 철근은 1.78%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4.93	+0.79	+0.44	Dollar Index	97.413	-0.08	-0.11
브렌트유	58.57	+0.07	-2.07	EUR/USD	1.1214	+0.12	+0.10
금	1,517.20	+0.58	+2.76	USD/JPY	105.28	-0.39	-0.63
은	17.071	+0.83	+4.14	GBP/USD	1.2076	+0.36	-0.55
알루미늄	1,770.00	-0.06	+0.40	USD/CHF	0.9692	-0.36	-0.44
전기동	5,742.00	-0.23	+1.00	AUD/USD	0.675	-0.53	-0.09
아연	2,278.00	+1.97	-1.43	USD/CAD	1.3241	+0.14	+0.28
옥수수	392.75	-5.98	-5.30	USD/BRL	3.9826	+1.02	+0.16
밀	476.25	-5.03	-3.74	USD/CNH	7.1022	+0.05	+0.05
대두	879.25	-1.40	+1.21	USD/KRW	1216.20	+0.47	+0.07
커피	97.30	-3.38	-1.87	USD/KRW NDF 1M	1217.57	+0.34	+0.0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639	-10.61	-6.89	스페인	0.226	-3.10	-1.70
한국	1.282	+0.20	+3.50	포르투갈	0.236	-4.60	-4.40
일본	-0.217	0.00	-2.60	그리스	2.146	+2.70	+11.30
독일	-0.592	-1.60	-7.60	이탈리아	1.699	-10.50	+13.50